

경계 위의 존재들

— 이민진의 『파친코』를 통해 본 재일조선인의 존재 방식

오 태 영*

요약

이 글에서는 이민진의 『파친코』 서사 분석을 통해 경계 위의 존재로서 재일조선인의 존재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전후 일본사회의 에스닉 내셔널리즘의 차별적 구조 속 재일조선인들은 자기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불안과 동요를 겪고 있었다. 『파친코』의 서사는 경계 위의 존재로서 재일조선인의 자기 보존의 욕망과 발전이 차별적 사회 구조 속에서 강화되는 한편, 결코 그것이 달성될 수 없는 역설적 상황을 서사화하고 있다. 한편, 전후 일본사회에서 재일조선인들은 끊임없이 이동의 과정 중에 놓여 있었다. 그들의 이동은 자기 장소를 상실당한 자들이 정주에의 욕망에 이끌린 결과였다. 하지만 일본도 조선도 아닌 곳,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위계화된 차별 구조가 작동하지 않는 곳을 꿈꾼다고 하더라도 재일조선인들은 결코 그곳을 찾아 안착할 수 없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의 지속적인 이동의 과정은 그 자체로 전후 일본사회에서 경계 밖으로 내몰리는 재일조선인들의 장소 상실을 증거한다. 이처럼 재일조선인이라는 존재는 남북한과 일본 사이를 넘나들면서 그러한 경계를 지탱하는 상징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아가 경계 그 자체를 무화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민진의 『파친코』 서사에 나타난 재일조선인들의 선택과 욕망을 통해 트랜스내셔널 디아스포라의 탈경계적 삶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재일조선인, 경계, 모방, 배제, 트랜스내셔널, 디아스포라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국어국문학전공 조교수

목차

1. 역사 밖 수난의 기록, 재일 가족사 연대기
2. 일본인-되기의 비의, 자기 보존의 역설
3. 지속되는 이동, 배제의 트라우마적 상흔
4. 트랜스내셔널 디아스포라의 가능성

1. 역사 밖 수난의 기록, 재일 가족사 연대기

이민진의 『파친코』 서사는 처음부터 역사 밖 존재들의 수난의 기록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역사가 우리를 망쳐 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¹⁾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이 소설은 내셔널 히스토리의 자장 밖으로 내몰린 자들의 수난의 역사를 직조하고 있다. 대략 1910년부터 1989년까지 20세기 전반에 걸쳐 (재일)조선인 4세대의 처절한 삶의 궤적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서사화하고 있는 이 소설은 대문자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자들, 배제되고 소외된 자들의 생존기 정도로 읽힌다. 제국-식민지 체계기 식민지 조선의 부산 영도에서부터 시작해 냉전-분단 체계기 전후 일본의 오사카를 거쳐 요코하마로 이주하는 그들 세대의 삶의 기록은 한일 내셔널리즘의 경계 밖으로 내몰린 존재들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하다. 또한, 전 세대를 관통해 딸이자 아내, 어머니이자 할머니였던 여성 순자의 삶을 부각시키는 것을 통해 여성 수난사와 재일 가족사 연대기를 펼쳐 보이고 있다.

이 소설이 한국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저자의 개인사적인 이력과 함께 해당 소설에 대한 영미권의 찬사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저자 이민진은 한국계 1.5세대로, 7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가 성장하였고, 예일대 역사학과와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4년부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2008년 발표한 『백만장자들을

1) 이민진 지음, 이미정 옮김, 『파친코 ①』, 문학사상, 2018, 11면.

위한 공짜 음식』으로 베스트셀러 작가로서의 입지를 마련하였는데, 2017년 『파친코』가 뉴욕 타임즈, 영국 BBC 등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고 애플 TV에서 8부작 드라마로 제작될 예정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한국사회에서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 트럼프의 반(反)이민 정책²⁾ 속 아시아계 미국 이민가족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영미 문화비평계로부터 찬사를 받았던 『파친코』는 ‘재미 교포’ 작가가 쓴 ‘재일 교포’에 관한 이야기로서 한국 독자들에게 소개되어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이는 ‘교포’라는 단어가 상징적으로 드러내듯, 여전히 한국이라는 내셔널한 문화지정학적 경계를 잣대로 저자와 소설을 규정하고 호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소설에 관한 기존 연구는 미미하게 이루어졌는데, 대체로 그것들은 한국의 문화지정학적 경계 너머의 사유를 보여주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승연은 차별과 억압을 받는 재일조선인의 선택에 주목하여 일본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패싱(passing),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한국인으로 살아가기, 그리고 귀화하여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방안을 제시한 뒤 어떠한 선택도 쉽게 할 수 없는 재일조선인들의 입장을 논의한다.³⁾ 하지만 이러한 선택들이 차별과 억압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뿐더러 선택 과정의 주체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거부는 동화/이

2)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1월 25일 국경보안 및 이민법 시행을 강화할 목적으로 행정명령 13767호를 발동하여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고 국경수비대 요원과 이민국 직원을 증원하였다. 또한 같은 날 이민법 집행을 거부하는 소위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한 연방기금 지원을 중단하고 불법체류자를 신속하게 추방하는 행정명령 13768호도 함께 발동하였다. 이어 27일 국토안보부장관이 지정한 테러 위험 이슬람권 7개 국가 국민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 중단 및 90일 간 미국 입국을 금지시키는 행정명령 137657호를 발동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모두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반이민 정책의 일환이었다.(조정현,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국제법상 난민·이민자 보호-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국제법평론』 제47호, 국제법평론회, 2017, 43-44면.)

3) 이승연, 「생존을 위한 도박 『파친코』를 통해 보는 자이니치의 삶 『파친코』, 『아시아여성연구』 제58권 3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9, 209-216면.

화처럼 재일조선인의 삶과 존재 방식을 단순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반해 손영희는 이 소설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에 대한 공감과 공유 의식에 주목하는 한편, 재일조선인이 “어느 인종, 민족에 속하는가에 의해 규정된 규범, 법, 코드화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법적 선택을 선택하지 않을 용기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갈 용기”⁴⁾를 보여준다고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파친코』에서 재일조선인의 경계 넘기가 다문화·다인종 시대 폭력적인 구별 짓기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소수자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윤리성 획득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타자화된 경계인들의 소외와 정체성 문제를 트랜스내셔널 시대의 보편성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임진희는 『파친코』에 나타난 장소에 주목하여 그곳이 “인간의 정체성을 지배하는 정치경제적 이데올로기이자 공동체적 경험으로서의 생명정치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⁵⁾고 논의하면서 재일조선인 가족 서사에 공감하는 독자들의 확장된 장소 리터러시가 대안적 장소 담론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밝혔다. 『파친코』의 서사에 나타난 장소 상실, 장소와 정체성, 장소와 권력에 대한 흥미로운 논의를 바탕으로 내셔널리즘의 경계를 넘어 탈경계적 공존의 의미와 가치를 묻고 있는 이와 같은 논의는 재일의 존재 방식을 파악하는 데 일정 부분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재일조선인들의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 한일의 내셔널한 경계 갖기의 작업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된 자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경계 위의 존재로 위치시키면서 자기만의 삶을 구축하고 영위해갔는가를 탐색하는 데 비판적인 관점을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4) 손영희, 「디아스포라 문학의 경계 넘기: 이민자의 『파친코』에 나타난 경계인의 실존양상」, 『영어영문학』 제25권 3호, 미래영어영문학회, 2020, 79면.

5) 임진희, 「민진 리의 『파친코』에 나타난 재일한인의 장소담론」,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Vol.9, No.8,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9, 279면.

이 글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재일조선인의 자기 보존의 방편으로서 일본인-되기의 역설적 상황에 주목하는 한편, 경계 위의 존재들로서 재일조선인들의 이동 및 공간 형성, 그리고 장소 상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해방/패전 이후 한국과 일본사회 그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재일조선인’으로 살아갔던 그들은 한국인과 일본인이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타자로서 위치 지어졌다. 하지만 이 타자들은 단순히 주체화의 폭력적 산물로서 남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주체화 과정의 문법과 질서가 내셔널리즘의 자장 속에서 배제와 차별을 정당한 것으로 권위 부여하고, 자연스럽게 그러한 권위에 가담하거나 그것의 폭력성을 눈감게 했다는 점을 폭로한다. 뿐만 아니라, 정주에의 열망 속에서도 삶의 근거지를 박탈당한 채 자기 장소를 상실하고 이산하는 재일조선인의 모습을 통해 경계 밖으로 내몰린 자들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경계가 확정된 상태에서 그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배제하는 것을 통해 경계 긋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 그리하여 경계는 언제나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다시금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주지하는 바, 재일조선인의 정체성과 그들의 사회적 이동에 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⁶⁾ 특히, 재일조선인 문학은 세대와 젠더를 달리해 형성되고 전개되어왔지만, 범박하게 말해 재일조선인의 이동—체제 변동에 따른 사회적 이동과 문화적 이동을 포함하는—과 정체성 구축에 주목하면서 한일 내셔널리즘의 경계 긋기 작업을 비판적으로 성찰하

6) 이와 관련해 텍스트 마이닝기법을 활용해 ‘코리안디아스포라 문학’에 관한 연구의 대상과 주제를 분석한 강진구, 김성철에 의하면, 코리안디아스포라 문학 연구는 한글문학과 한글문단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고, 정체성 연구를 핵심적인 주제로 삼았으며, 큰 틀에서 한민족 통일문학사 관점을 취하고 있지만 미주 거주 코리안문학의 경우 ‘한국계 작가의 소수자문학으로 다루는 한편, 민족 문제를 넘어 생활공간과 사회로까지 그 대상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대해서는 강진구·김성철,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코리안디아스포라 문학 연구 경향 분석」, 『우리문학연구』 제69집, 2021, 우리문화회, 325-359면.

게 했다. 여기에 비교적 최근 재일조선인 문학에 관한 논의에서 공간과 장소, 이동과 경계, 전지구적 디아스포라 현상, 다인종·다문화주의의 관점이 더해지면서 논의를 풍성하게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⁷⁾ 이 글에서는 영미권에서 생산·수용된 이민진의 『과친코』 서사가 갖는 ‘외부자의 시선’이 경계 위의 존재들로서 재일조선인을 새롭게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판단 아래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트랜스내셔널 디아스포라의 가능성 또한 가늠해보고자 한다.

2. 일본인-되기의 비의, 자기 보존의 역설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것은 범박하게 말해 타자로서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로서 자기를 정립하는 것을 말한다. 주체가 된다는 것은, 언제나 지난한 과정을 동반하지만, 자율의지를 가진 단독자로서 개인에게는 숙명 과도 같은 자기 욕망의 발현을 의미한다. 또한, 주체/타자의 위계화된 구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적인 차별 구조는 개인들로 하여금 언제나 주체의 위치를 꿈꾸게 한다. 쫓겨나고 버려진 존재에게 타자의 자리는 대체로 자기 상실을 맛보게 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은 자기 상실을 넘어 주체로서의 자기를 구축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인다. 제국-식민지 체제기 식민지 조선인들이 (비)자발적으로 제국 일본인이 되고자 했던 욕망은 결코 그 자체로 달성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이러한 맥락 속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피식민자로서 차별적 상태의 극복은 체제의 통치 권력

7) 김환기에 의하면, “고향의식(귀향의식), 자기(민족)정체성, 모국어와 모어, 현지사회와의 갈등과 대립, 귀화, 월경, 혼종성과 글로벌리즘(Glocalism)의 가치와 이미지는 그러한 디아스포라 문학의 경계의식을 표상하는 지점들”(김환기,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의 경계의식과 ‘트랜스내이션’, 『횡단인문학』 창간호,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인문학연구소, 2018, 65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재일조선인 문학을 디아스포라 문학으로 보는 관점에서도 일정 부분 적용된다 고 할 수 있다.

에 의해 불가능한 것이지만, 식민지 조선인들의 주체화 과정에서는 그것이 일본인·되기라는 욕망의 발현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제국 일본의 패전과 식민지 조선의 해방이라는 사건으로 제국·식민지 체제의 위계화된 구도가 해체되었지만, 전후 일본사회에서 재일조선인들은 계속해서 타자의 위치에 고착화되었다.

주체/타자 사이의 거리, 차별적 구조는 ‘경계’를 통해, 좀 더 정확하게는 경계 갖기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일반적으로 경계는 “사람·화폐·물건의 전지구적 통로들을 관리하고, 보정하며, 통치하기 위해 세밀하게 조율된 장치”로 “주권 권력의 변혁들과 정치와 폭력의 양면적 결합이 결코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공간들이다.”⁸⁾ 그런데 마치 담장의 이미지처럼 경계는 배제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장치로서 인식되지만, 오히려 그보다는 사람들을 선별하고 거르는 포섭의 장치이다. 따라서 경계가 어떻게 권력과 자본의 지형들을 따라 복수의 통제 지점들을 구축하는 배제·포섭의 기능을 발휘하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⁹⁾ 또한, “어떤 경계를 표시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영토를 정의하는 것이고, 그것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영토의 정체성을 천명하는 것이고, 혹은 그 위에 정체성을 하나 부여하는 것이다.”¹⁰⁾ 패전 이후 전후 일본사회에서는 다양한 경계들이 구획되어갔고, 그 속에서 재일조선인들은 동화와 이화, 포섭과 배제의 대상으로 위치 지어졌던 것이다.

그렇다면 전후 일본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타자의 위치에 놓인 재일조선인들에게는 어떠한 선택이 가능할까? 그리고 그러한 선택은 과연 재일조선인의 주체화 기획을 달성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 앞서 이승연의 논의를 빌리자면, 재일조선인들의 선택지는 일본인으로의 귀화, 외국인으로서의 자기 고수, 그리고 일본인으로의 행세 정도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일본

8) 산드로 메자드라·브렛 닐슨 지음, 남청수 옮김, 『방법으로서의 경계』, 갈무리, 2021, 25면.

9) 위의 책, 30-31면.

10) Balibar, Étienne, *Politics and the Other Scene*, London: Verso, 2002, p.76

국내법에 의해 일본인이 된 재일조선인이 귀화 이전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탈각했다고 할 수 없고, 같은 맥락에서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유지·존속시키는 것이 차별의 구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또한 아니다. 따라서 귀화 여부는 법적·제도적 측면에서의 일본사회에 입사하는 데 용이할지언정, 그것이 정체성 재구축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일본사회로부터 차별 당하지 않기 위해 일본인으로서 행세하는 것은 언제나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밝혀질 위험 속에서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따라서 그 또한 정체성 구축의 완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정체성 구축이나 주체화의 욕망을 살펴보는 데 있어 그러한 선택의 결과보다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재일조선인이 전후 일본사회의 억압적 차별구조 속에서 어떠한 수행적 과정을 통해 정체성을 구축해가고 있었는가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재일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배제와 포섭의 경계 짓기 프로젝트가 전후 일본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일본인/재일조선인 사이의 차별적 구조를 재생산한 것이었다면, 그러한 차별적 구조를 폭로하고 그것에 균열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이거나 수동적인 상태에서의 귀화나 행세 그 자체가 아니라 그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의 재일조선인의 욕망과 불안이 어떻게 표출되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민진의 『파친코』의 서사는 등장인물의 행위와 그 속에 내재된 욕망을 통해 이를 서사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인물들은 주로 일본에서 나고 자란 재일조선인 2세 이후의 세대들이다. 그들이 일본식과 조선식, 그리고 그것이 혼재된 방식의 “적어도 이름을 세 개 가지고 있었다”¹¹⁾는 것은 정체성 구축 과정에서 불안과 동요를 겪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그들이 ‘착한

11) 이민진 지음, 이미정 옮김, 『파친코 ②』, 문학사상, 2018, 18면.

조선인'과 '나쁜 조선인'으로 구별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존재로서 포섭과 배제의 생명 정치의 대상으로 위치 지어져 정체성 구축 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인 야쿠자 집안의 데릴사위 격으로 들어가 권세를 누리고 있던 고한수는 자신의 금권을 통해 조선인임을 극복하고자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었고, 일본인의 피가 섞여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재일조선인이 부라쿠민보다 '천한 족속'으로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착한 일본인 따위는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백목자수 또한 나쁜 조선인이 되어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억압적 차별 구조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재일조선인 3세인 백솔로몬이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는 상황을 통해 보다 극명하게 드러난다.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표 시 일본 정부는 법무부 민사국의 '통달'이라는 형식으로 옛 식민지 출신자들의 일본 국적을 상실케 했다. 이는 재일조선인 국적 문제에 대해 대체로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1949년 12월 중의원 외무위원회의 답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옛 식민지 지역의 잔류 일본인들의 귀환이 거의 완료되고,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등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미국 측의 평화조약 구상에 국적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재일조선인들의 일본 국적을 일률적으로 박탈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통달 한 통으로 외국인이 되어버린 재일조선인들은 1951년 10월 공포된 출입국관리령의 대상이 되어 외국인등록증을 상시 휴대해야 했고, 1955년 외국인등록법 개정에 따라 지문 날인을 의무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¹²⁾ 재일조선인들의 일본 국적 박탈은 전후 체제의 질서와 문법이 제국국가에서 국민국가로 전환되면서 국민-됨의 자격을 일본인에게만 부여하고 비(非)일본인들을 국민의 경계 밖으로 내쫓고 있었던 정황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12) 미즈노 나오키·문경수 지음, 한승동 옮김, 『재일조선인: 역사, 그 너머의 역사』, 삼천리, 2016, 144-145면.

그러하여 전후 일본사회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재일조선인들은 일본인과 같은 안정적 지위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파친코』의 서사에도 잘 드러나는데, 작중 서술자에 의하면 “1952년 이후에 일본에서 태어난 조선인들은 열네 살 생일에 지방관청으로 가서 거주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 후로는 일본을 영원히 떠나고 싶지 않으면 3년마다 등록증을 갱신해야 했다.”¹³⁾ 14살 생일을 맞아 파티를 열기 전 백술로몬은 관할 관청에 들러 지문을 날인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받아야 했는데, 그것은 그의 아버지 백모자수에게 조국을 상실한 자가 일본에서 살아남기 위해, 추방당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개목걸이’를 차는 것처럼 인식된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법적·행정적 절차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와 같은 등록증 발급은 “손톱 밑에 낀 잉크”¹⁴⁾가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마치 주홍글씨를 새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해 한국계 미국인 피비가 “왜 일본은 아직도 조선인 거주자들의 국적을 구분하려고 드는 거야? 자기 나라에서 4대째 살고 있는 조선인들을 말이야. 넌 여기에서 태어났어, 외국인이 아니라고! 이걸 완전 미친 짓이야.”¹⁵⁾라고 항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일조선인을 또 다른 경계 속에 가두는 낙인찍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따라서 재일조선인들은 경제적 부를 축재해 일본인들의 멸시의 이미지로 고착화된 ‘가난한 조선인’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선량한 것으로 보이는 일본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일본인이 아닌 자로서 지속적으로 배제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재일조선인으로서 정체성을 고수하는 것도, 일본인이 되거나 일본인으로 위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물론 정체성은 그 자체로 유동적이고 끊임없이 (재)정립되어가는 것이지만, 한 개인이 주체

13) 이민진 지음, 이미정 옮김, 『파친코 ②』, 앞의 책, 241면.

14) 위의 책, 264면.

15) 위의 책, 314면.

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거나 자기를 정위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재일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온한 자로 낙인찍히거나 일본사회로부터 배제되는 것은 정체성 구축의 시도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결과를 낳는다. 즉, 재일조선인들에게는 주체화의 기획이 성공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주체화의 기획 자체가 봉쇄되어 있었던 셈이다. 일본인의 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본인이라는 경계 밖으로 내몰린 그들에게는 그저 살아남는 길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었다.

이처럼 전후 일본사회의 에스닉 내셔널리즘의 차별적 구조 속 재일조선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불안과 동요를 겪는 인물들은 『파친코』 서사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그들 중 그 누구보다 백노아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경계인으로서의 재일조선인의 유동적 위상에 대해 짐작할 수 있다. 유년기 그는 백노아라는 이름 대신 보쿠 노부오라는 일본식 이름을 사용했고, 한국식 성을 일본식으로 읽는 이름 때문에 조선인임이 쉽게 밝혀졌지만, 그는 자신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굳이 조선인임을 밝히지 않는다. 일본인 학생들보다 일본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그는 식민지 조선이나 한반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꺼릴 정도로 조선인으로서의 자기를 회피하면서 성장하였다. 고학을 통해 와세다대학에 입학해 영문학을 전공하고 있었던 그는 졸업 이후 영어교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립학교에서는 조선인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뒤에도 언젠가는 그러한 법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한편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시민’이 되는 것을 생각해보기도 하였다. 그는 조선인으로서의 소외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학업에 매진하는 한편, 전후 일본사회의 차별적 위계 구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영문학에 몰입했던 것이다.

사실 그는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조선인이나 일본인이라는 국적에 신경 쓰지 않았고, 그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와세다대학에서 일본인 상류층 집안 출신의 여성 아키

코와 만나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지만, 그녀가 자신의 부모가 조선인을 차별하는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힐난하면서 자신은 오히려 조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을 때, 그는 조선인으로서 호명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천대의 대상이 아닌 환대의 대상으로 위치 지어진다 고 하더라도 그는 일본인에게 조선인이라는 타자로서 고착화되었던 것이다. 조선인으로서 자신을 망각하고자 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는 “조선인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되고 싶었”¹⁶⁾을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그 자체로서의 존재를 부인당한 그는 조선인으로서 자기를 은폐하는 전략 속에서 일본인으로 행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 이때의 일본인으로서의 행세는 자기 보전을 위한 하나의 전략¹⁷⁾, 자기 자신에의 배려의 방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후원자라고만 여기고 있었던 고한수가 자신의 생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백노아는 자신의 피가 조선인의 것이자 야쿠자의 것이라며 절규한다. ‘더러운 피’를 가진 존재로서의 자기 규정, 그것은 일본인으로서 행세하면서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피해왔던 자신의 자기 보존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그는 “엄마가, 엄마가 제 인생을 앗아갔어요. 전 더 이상 제가 아니에요.”¹⁸⁾라고 힐난하면서 학업을 중단하고 가족을 떠난다. 이후 나가노의 파친코에 취업하고 일본인 여성과 만나 결혼한 그는 조선인으로서의 자기를 은폐한 채 살아간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는 조선인으로서의 과거의 자기를 완전히 탈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지도 모

16) 위의 책, 118면.

17) “행세란 부인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욕망하는 지위를 달성하고 손에 넣으려는 자기표현과 자기표상을 뜻한다. 그렇다면 보통은 특권층과 비 특권층, 명망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정상 인간과 일탈 인간을 구분하는 경계를 침범한다는 뜻인데, 그러려면 결국 욕망하는 성취 지위를 잘 수행하면서 동시에 혐오하는 귀속 지위를 잘 숨겨야 한다.”(존 리 지음, 김혜진 옮김, 『자이니치: 디아스포라 민족주의와 탈식민 정체성』, 소명출판, 2019, 47면.)

18) 이민진 지음, 이미정 옮김, 『파친코 ②』, 앞의 책, 125면.

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¹⁹⁾을 정도로 불안 상태에 놓여 있었다. 반 노부오라는 이름으로 16년째 나가노에서 ‘순수한 일본인’으로 살고 있었던 백노아는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만난 뒤 파친코에서 일하는 자신에게 ‘저주받은 피’가 흐르고 있다고 말한다. 그에 대해 어머니 순자가 “니가 조선인이라는 게 그리 끔찍하나?”라고 묻자 “제 자신이 끔찍하게 느껴져요.”라고 답한다.²⁰⁾ 이 자기 환멸은 애써 조선인으로서의 자기를 회피했던 백노아가 반 노부오라는 일본인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일본인으로서의 귀화를 통해 귀화 이전 조선인으로서의 자기 탈각이 불가능하고, 조선인으로서 정체성을 고수하는 것이 일본사회의 폭력적 차별 구조 속에서 인간 존재로서의 자기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일본인으로서의 행세를 선택했지만, 결국 그 또한 언제나 자신의 정체가 밝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상황 속에서 죽음을 선택한 재일조선인 백노아. 그는 일본인도, 조선인도 아닌, ‘그냥 인간’으로 존재하고 싶었을 뿐이었지만, 그를 둘러싼/관통한 경계들은 그로 하여금 그저한 인간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해서 그는 스스로를 일본인도 조선인도 아닌, 일본인과 조선인의 경계 위에 위치시키면서 위험한 줄타기를 시도한 것이었지만, 그의 그러한 생존을 위한 곡예는 일본인과 조선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계 굽기의 폭력 속에서 무참히 실패하고 만다. 그의 죽음은 어머니와 남동생에게는 조선인의 죽음으로,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일본인의 죽음으로 남겨질 터인데, 그런 점에서 그는 죽음 이후에도 산 자들의 기억의 경계 속에서 ‘그냥 인간’이 아닌 일본인/조선인으로 남겨진다. 이처럼 『파친코』의 서사는 백노아의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서사화하는 것을 통해 경계 위의 존재로서 재일조선인의 자기 보존의 욕망과 발현이 차별적 사회 구조 속에서 강화되는 한편, 결

19) 위의 책, 191면.

20) 위의 책, 231면.

코 그것이 달성될 수 없는 역설적 상황을 보여준다.

3. 지속되는 이동, 배제의 트라우마적 상흔

이민진의 『파친코』 서사가 전후 일본사회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존재로서 재일조선인들의 수난의 역사를 직조한다고 했을 때, 그들은 끊임없이 이동의 과정 중에 놓여 있다. 무엇보다 그들의 이동은, 정주에의 욕망을 지니고 있었지만 자기 장소를 갖지 못한 자들이 지속적으로 자기 장소를 획득하기 위해 분투한 생존의 기록이자 동시에 전후 일본사회의 사회적 공간들로부터 내몰리고 있는 재일의 처절한 삶의 조건들을 보여준다. 제국-식민지 체제가 식민지 조선의 부산 영도에서 나고 자란 순자는 백이삭과 결혼해 그의 형이 있는 오사카로 이주한다. 이후 그녀의 아들들은 오사카에서 요코하마, 나가노로 다시금 이주해 삶을 이어가지만, 그것이 생활의 안정과 안전을 위한 자기 영토의 점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즉, (재일)조선인들은 자기 장소를 상실당한 채 지속적으로 내몰렸고, 일본인/조선인의 폭력적 차별 구조를 강화하는 경계 구획 속에서 경계 밖으로 소외되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에서 먼저 주목되는 공간은 선자 부부가 처음 일본에 이주한 곳이자 그들 부부의 자식들이 나고 자란 이카이노이다. 조선인 집단 거주지인 “이카이노는 일종의 잘못 만들어진 마을이었다.”²¹⁾ 값싼 자재들로 영성하게 지어진 판잣집들은 대부분 망가져 있었고, 냄마를 걸친 아이들과 술주정뱅이가 술에 취해 골목에 잠들어 있는 풍경은 그곳이 얼마나 척박한 곳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더구나 좁은 방으로 인해 가족들이 교대로 잠을 자고, 집안에서 가축을 기르며, 수도와 난방이 되지

21) 이민진 지음, 이미정 옮김, 『파친코 ①』, 앞의 책, 160면.

않는 그곳은 일본인들에게 ‘더러운 조선인’ 마을일뿐이었다. 일본인이 조선인에게 집을 빌려주지 않아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는 조건을 상실한 조선인들이 모여들어 자연스럽게 형성된 이카이노는 그림 점에서 경계 밖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그곳은 김시중이 “누구나 다 알지만 / 지도엔 없고 / 지도에 없으니까 / 일본이 아니고 / 일본이 아니니까 / 사라져도 상관없고”²²⁾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그곳에서 제일조선인들 중 유일하게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형 백요셉으로 인해 선자 부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주위의 굶주린 조선인들에 의해 언제나 위협을 받을 수 있었다. 별거벗은 신체들의 집합소로서 이카이노는 제일의 존재 방식이 죽은 자와 다름없는 산 자들의 공간으로서 디스토피아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음을 가늠케 한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제일조선인들은 게으르고 시끄러우며 불결한 존재로 인식되어 배제와 차별의 대상으로 고착화되었다. 무엇보다 이카이노의 조선인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데 몰두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그들은 살아 있는 생명 그 자체인 ‘조에(zoe)’로서만 존재할 수 있었다. 결국 그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비오스(bios)’로 여겨지지 못해 존재의 의의를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때 가치 있는 삶이란 범박하게 말해 전후 일본 체제의 실정성을 강화하는 데 포섭된 일본인의 삶, 바로 그것이다.

조에를 넘어선 비오스로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 그것은 이카이노의 제일조선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제일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 존재 그 자체가 부정당하고, 전후 일본사회에서 사회적 존재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란 요원한 일이다. 자기 장소를 상실한, 아니 애초에 자기 장소를 갖지

22) 김시중 지음, 유숙자 옮김, 「보이지 않는 동네」, 『김시중 시선집 : 경계의 시』, 도서출판 소화, 2008, 85면.

못한 그들에게 안전과 안정의 영토에 대한 희구와 정주에의 욕망은 달성 불가능한 것이었고, 그리하여 자기 장소로부터 유리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장소 상실은 기실 그들이 고향을 떠난 그 순간 예비된 것이기도 하였다. 존재의 시원이나 유년기 기억의 장소로서 고향을 떠나 먹고 살기 위해 오사카 이카이노로 이주하였지만, 그곳은 출향자 재일조선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인식되거나 감각되지 못했다. 그리하여 자기 장소를 상실한 자들은 자연스럽게 떠나온 고향과 고국에 대한 회한의 감정, 노스텔지어의 감각을 환기하게 된다.

“노아는 조선이 평화로운 땅이 되어 자신이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갈 모습을 상상해보았다. 아버지는 자신이 자랐던 평양은 아름다운 도시였고, 엄마의 고향인 영도는 청록빛깔 바다에 물고기가 풍부한 평화로운 섬이었다고 말하곤 했다.”²³⁾ 오사카에서 성장하다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일본인 경영 시골 농장으로 가족과 함께 피신했던 백노아는 부모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을 그리는 동시에, 그곳에서 자신이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한다. 이미 유년기부터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오사카에서 차별을 받았던 그는 기억 속의 공간, 노스텔지어의 대상으로서 부모의 고향을 상상하면서 자신의 차별적 상태를 벗어날 것을 갈망한다. 따라서 자기 장소로부터 유리된 재일조선인의 원형의 공간으로서의 고향에 대한 동경은 현재의 경계 밖으로 내몰리는 데 대한 불안감을 고향에 대한 상상으로 봉합하려는 시도에 다르지 않다. 하지만 고향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고, 그런 점에서 사회적 공간으로 부더의 배제를 봉합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소설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20년이 넘도록 고국에 가보지 못한 김창호이다. 그는 오랫동안 고향 수 밑에서 일하다 1959년 12월 귀국사업에 참여하여 북한으로 향한다. 고

23) 이민진 지음, 이미정 옮김, 『파천코 ①』, 앞의 책, 327면.

국을 그리워하던 그는 남한 출신으로 부모의 무덤이 있는 대구를 향하는 것이 아닌, 해방과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 그리고 한국전쟁의 참상을 목도하면서 국가 재건 사업에 기여하기 위해 북한행을 선택했던 것이다. 하지만 고국을 그리워하는 그에게 고한수는 “너는 북한에 가면 살해당할 거야. 남한에서는 굶어죽을 거고. 다들 일본에서 살았던 조선인들을 미워하거든. 네가 고국에 가는 건 절대 찬성할 수 없어. 절대 안 돼.”²⁴⁾라고 말한다. 이 말은 북한이 결코 재일조선인의 새로운 정주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재일조선인 귀국사업은 북한과 일본 사이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진행되었다. 북한은 재일조선인 사회에 영향력을 강화해 일본 내 정치와 사회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기 위한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귀국사업을 간주하고 있었고, 일본은 오무라수용소 문제와 빈곤한 재일조선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귀국사업을 추진했던 것이다.²⁵⁾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귀국해 국가 재건에 기여하고자 했던 재일조선인의 귀국 후 삶은 이 소설에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일본에 남은 조선인들이 그를 기억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장면들을 통해 그가 고국의 품에 안착했을 것이라고, 그리하여 일본사회에서 받았던 차별로부터 벗어났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오히려 고한수의 말처럼, 또 다시 북한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배제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패전/해방 이후 한반도의 체제 변동과 공간 질서의 재편에 따라 재일조선인들이 떠나오기 전 고국과 고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카이 노에서의 장소 상실이 고국과 고향에 대한 동경을 강화했지만, 고향 상실속에서 장소 상실감은 지속되고 증폭된다. 따라서 그러한 장소 상실을 회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대안 공간이 요구된다. 전후 일본사회의 상징 질

24) 위의 책, 353면.

25) 테사 모리스 스키 지음, 한철호 옮김, 『북한행 엑소더스—그들은 왜 ‘북송선’을 타야만 했는가』, 책과함께, 2008, 233-234면.

서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적 공간들이 재일조선인들을 경계 밖으로 내모는 한 재일조선인들은 자기만의 장소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경계 밖으로 내몰린 자들이 고국이나 고향에 대한 기억과 향수의 감정을 환기하면서 상상적 봉합을 통해 자기만의 장소를 꿈꾸게 되었지만 그러한 고국과 고향이 훼손되어 오히려 상실감을 증폭시키게 된다면, 일본도 고국도 아닌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대안 공간은 무엇보다 일본사회의 구조적 차별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공간이어야만 했다.

이 소설에서 그러한 대안 공간은 ‘미국’으로 나타난다. 이는 『파친코』 서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미국을 동경의 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백노아가 영문학을 전공하고 있었던 것이 조선인으로서의 제한적·폐쇄적 위상으로부터 벗어나 단지 일본인이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일본인/조선인 사이의 차별적 위계 구조 그 자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처럼, 유미에게 미국은 일본과 달리 차별받지 않는 곳으로 인식된다. 부모로부터 받은 폭력적인 트라우마를 간직하고 있는 그녀는 미국영화를 보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살 결심을 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그것은 “멀시당하거나 무시당하지 않는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²⁶⁾기 때문이었다. 백모자수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조선인이 되는 것을 가난이나 수치스러운 가족에 얽매는 것이라고 꿈쩍해했던 그녀는 같은 맥락에서 일본에서 사는 것 또한 자신의 트라우마적 기억을 환기시켰기 때문에 그에 대해 장소 혐오의 태도를 보인다. 그녀는 백모자수와 결혼해 미국에 가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코 그녀의 욕망은 달성되지 못한다.

하지만 이카이노를 벗어나 미국을 동경하는 재일조선인의 모습은 차별과 배제의 영토인 일본으로부터의 이탈 욕망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백

26) 이민진 지음, 이미정 옮김, 『파친코 ②』, 앞의 책, 99면.

모지수가 파친코를 경영하면서 요코하마로 이주해 집을 짓고 사는 것을 통해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요코하마의 서양인 거주 지역에 있는 방세 개짜리 최신식 집이었다. …(중략)… 가구들은 미국 영화에 나오는 것들과 비슷했다. 소파며 높은 원목 식탁, 크리스털 샹들리에, 가죽 안락의자까지 모두 미국식이었다. 한수는 이 집안 식구들이 요나 바닥이 아니라 침대에서 잔다고 추측했다. 이 집에는 오래된 것들이 보이지 않았다. 조선이나 일본의 흔적이 하나도 없었다.”²⁷⁾ 서양인 거주 지역에 서양식 주택을 짓고, 미국식 가구를 비치하는 등 백모수아의 요코하마 이주는 일본과 조선 사이의 경계를 초월한 곳을 지향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가 아들 솔로몬을 국제학교에 보내고 일본어와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교육했던 것, 전 세계 중산층 사람들 사이에서 성장하는 국제적인 인재가 되기를 바라 “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우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도시”²⁸⁾ 뉴욕에 유학 보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재일조선인들에게 미국은 경계 밖 존재로서 자신들의 차별적 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곳으로 상상되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계 미국인 피비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라는 인종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한사람이나 북한사람이라는 국적의 구별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녀의 가족이 다국가다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들 사이에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제시된다. 하지만 재일조선인 4세 백솔로몬은 그녀와 결혼하여 미국 국적을 취득한 뒤 미국인으로 사는 것이 일본인으로 사는 것보다 나은 것인지 확신하지 못한다. 그는 일본에서 태어나 남한 여권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혈통의 문제를 넘어 자신 또한 일본인이기도 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그는 일본사회의 차별을 극복할

27) 위의 책, 179면.

28) 위의 책, 261면.

수 있다고 여겨지는 미국으로 향하지 않았던 것이다. 재일조선인 4세에게는 삶의 근거지를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선 세대와 달리 고국이나 고향과의 자기 동일시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미국행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전후 일본사회에서 재일조선인들은 끊임없이 이동의 과정 중에 놓여 있다. 그들의 이동은 자기 장소를 상실당한 자들이 정주에의 욕망에 이끌린 결과였고, 때때로 그것은 부모의 고향과 고국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체제 변동에 따라 고국과 고향은 변화되었고, 이제 그곳은 더 이상 그들을 환대해주는 장소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안전과 안정에의 영토를 찾아 정착하고자 했던 재일조선인들은 미디어를 통해 표상된 미국을 차별이 없는 대안 공간으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그곳으로의 이주는 일본에서 나고 자란 후세대 재일조선인들에게는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일본도 조선도 아닌 곳,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위계화된 차별 구조가 작동하지 않는 곳을 꿈꾼다고 하더라도 재일조선인들은 결코 그곳을 찾아 안착할 수 없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의 지속적인 이동의 과정은 그 자체로 전후 일본사회에서 경계 밖으로 내몰리는 재일조선인들의 상흔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트랜스내셔널 디아스포라의 가능성

이 글에서는 이진민의 『과친코』 서사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 경계 위의 존재로서 재일조선인의 존재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재일조선인의 자기 보존의 방편으로서 일본인-되기의 역설적 상황에 주목하는 한편, 그들의 이동 및 장소 상실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전후 일본사회의 에스닉 내셔널리즘의 차별적 구조 속 재일조선인들은 자기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불안과 동요를 겪고 있었다. 그들은 일본인으로

의 귀화를 통해 귀화 이전 조선인으로서 자기를 탈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조선인으로서 정체성을 고수하는 것 또한 일본사회의 폭력적 차별 구조 속 인간 존재로서의 자기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일본인으로서의 행세를 선택했다. 하지만 결국 그 또한 언제나 자신의 정체성이 밝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이었다. 이처럼 『파친코』의 서사는 경계 위의 존재로서 재일조선인의 자기 보존의 욕망과 발현이 차별적 사회 구조 속에서 강화되는 한편, 결코 그것이 달성될 수 없는 역설적 상황을 서사화하고 있다.

한편, 전후 일본사회에서 재일조선인들은 끊임없이 이동의 과정 중에 놓여 있었다. 그들의 이동은 자기 장소를 상실당한 자들이 정주에의 욕망에 이끌린 결과였고, 때때로 그것은 부모의 고향과 고국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체제 변동에 따라 고국과 고향은 변화되었고, 이제 그곳은 더 이상 그들을 환대해주는 장소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안전과 안정에의 영토를 찾아 정착하고자 했던 재일조선인들은 차별이 없는 대안 공간으로 미국을 상상하기도 하지만, 그곳으로의 이주는 일본에서 나고 자란 후세대 재일조선인들에게는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일본도 조선도 아닌 곳,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위계화된 차별 구조가 작동하지 않는 곳을 꿈꾼다고 하더라도 재일조선인들은 결코 그곳을 찾아 안착할 수 없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의 지속적인 이동의 과정은 그 자체로 전후 일본사회에서 경계 밖으로 내몰리는 재일조선인들의 장소 상실을 증거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외부자의 시선’이 경계 위의 존재들로서 재일조선인을 새롭게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판단 아래 가늠해보고자 했던 트랜스내셔널 디아스포라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짚어 두어야 할 것은 디아스포라 논의와 관련해 재일조선인을 ‘민족적 타자’로 위치시키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이전까지 조우하지 못한 다수의 타자들

과 대면하면서 다문화사회를 모색하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재일조선인을 디아스포라로 위치시켜 다문화사회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대응’하고 있다.²⁹⁾ 이는 한국사회가 ‘다수자’의 입장에서 재일조선인을 ‘소수자’로 타자화시키는 것으로 결국 디아스포라 담론을 전유해 다수성을 확인하는데 그칠 우려가 크다. 디아스포라 담론을 통해 재일조선인과 그들의 문학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재일조선인의 경험을 그 역사적 입장과 분리하지 않고, 현실에 입각해서 그려내는 자세를 뜻한다. 따라서 “전통적 의미에서의 역사와의 거리감에 난처하면서도 자기의 현주소를 찾으려고 하는 (재일조선인의-인용자) 행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³⁰⁾

외부자의 시선과 관련해 먼저 주목되는 것은 『파친코』 텍스트가 놓여 있는 콘텍스트이다. 영미권 독자들을 대상으로 영어로 씌어진 이 소설은 남/북한의 내셔널 히스토리에 민족 수난의 기록을 서술하거나 재일조선인사의 중심에 기민으로서의 재일조선인을 위치시켜 이해하는 방식과 거리를 둔다. 그것은 한민족이나 재일조선인이라는 특정한 인종, 계층, 지역을 넘어 버려지고 내몰린, 소외된 인간 일반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예비하는 것이다. 일본어로 씌어진 재일조선인 문학이 세대를 격해 대체로 ‘민족성’에서 ‘재일’로, 민족적 아이덴티티에서 동화와 이화 사이의 동요로 변모되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것은 민족을 회구하면서 동시에 ‘재일’을 사는 모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³¹⁾ 이는 일본인과 조선인 그 사이에서 겪는 정체성 구축의 동요를 주요 테마로 서사화하는 것으로 남북한과 일본 사이의 내셔널리즘의 자장 속에서 재일조선인의 존재 방식을 사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파친코』의 문화적 위상은 그러한

29) 이한정, 「재일조선인과 디아스포라 담론」, 『사이間SAI』 제24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2, 267면.

30) 리홍장,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을 보는 시각 : ‘더블’의 역사서에 관한 담론을 통해」, 『일본비평』 제14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6, 139-141면.

31) 尹健次, 『「在日」の精神史3』, 岩波書店, 2015, 13-14면.

자장을 넘어 제일의 모순—역사화된 자기를 탈역사화 하고자 동요하는 나—을 살아가는 제일조선인들을 ‘경계 위의 존재’로서 사유하게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민진의 외부자의 시선은 국민국가의 자족적인 경계 긋기 작업의 대상으로 호명된 ‘내부자’들의 인식 및 관점과 거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거리 두기를 통해 남북한과 일본 사이에 촘촘하게 구획된 경계를 넘나들 수 있게 한다. 물론 이민진은 “일본에서 살아가는 조선인들의 삶 대부분이 경시당하고 부인당하고 지워진다는 이야기를 글로 써야 한다”³²⁾는 믿음과 실천을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그것은 자칫 남한과 북한 내부자들의 민족 수난의 기억과 중첩되면서 항일 내셔널리즘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전후 일본사회의 제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폭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제일조선인들의 삶을 경시하고 부인하며 지웠던 것은 전후 일본사회만이 아니라 해방 이후 냉전-분단 체제 속 국가주의 권력을 강화해갔던 남/북한사회 또한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폭력적인 경계 긋기에 대한 비판은 전후 일본사회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잘 들어.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이 나라는 변하지 않아. 나 같은 조선인들은 이 나라를 떠날 수도 없어.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 고국으로 돌아간 조선인들도 달라진 게 없어. 서울에서는 나 같은 사람들을 일본인 새끼라고 불리. 일본에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근사하게 차려입어도 더러운 조선인 소리를 듣고,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굶어 죽거나 공포에 떨고 있어.”³³⁾ 일본인 학생들의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한 조선인 중학생 사건에 대해 조사하던 일본인 경찰 하루키가 조선인 학생의 부모로부터 일본인 학생들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낙담하자, 그를 향해 친구 백모자수가 한 이와 같은 말 속에는 제일조선인들이

32) 이민진 지음, 이미정 옮김, 『파천코 ②』, 앞의 책, 384면.

33) 위의 책, 220면.

그 어느 곳에서도 존재 그 자체로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 극명하게 부각되어 있다. 일본에서의 ‘더러운 조선인’, 남한(서울)에서의 ‘일본인 새끼’, 그리고 북한에서의 죽음에의 공포, 그것은 재일조선인을 경계 밖으로 내몰면서 그들의 존재성을 부정하는 폭력이다.

그런데 이러한 폭력의 동력은 그 무엇보다 동아시아의 냉전-반/공 이데올로기의 강화와 함께 남한, 북한, 일본이라는 국가의 경계 긋기 작업이 지속되면서 경계에 포섭된 자들이 배제되지 않기 위해 재일조선인들을 타자의 위치에 고착화시키고 그들을 경계 밖으로 내몰면서 자신들의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구축해왔던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국민국가의 경계를 끊임없이 확장하는 작업 속에서 포섭-배제의 생명정치의 문법을 (무)의식적으로 내면화한 자들의 자기 보존 전략이 반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폭력으로 발휘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보다 근원적으로는 국민국가라는 정치체—그 자체로는 어떠한 정당성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마치 의심할 수 없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는—가 성립된 이후 체제의 전환과 사회구조의 변동을 추동한 사건들이 발생했지만, 오직 자기 증식에만 몰두하고 있는 (국민)국가 그 자체의 내재적 속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국민국가의 경계를 전제로 하는 한 이러한 폭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21세기 인간사회를 규정하는 언어들 중에는 20세기까지 국민국가의 ‘신화’를 해체하거나 부정하는 말이 우세증을 차지하고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아르준 아파두라이가 『고삐 풀린 현대성』에서 스케이프(scape) 개념들³⁴⁾을 통해 논의한 것처럼, 세계화가 국민국가의 경계를 흐

34) 아르준 아파두라이는 전지구적 문화 흐름의 다섯 가지 차원들 사이의 관계를 탐사하기 위해 에스노스케이프(ethnoscapes), 미디어스케이프(mediascapes), 테크노스케이프(technoscapes), 파이낸스스케이프(financscapes), 이데오스케이프(ideoscapes)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를 넘어 “지구 전체에 퍼져 있는 사람들과 집단들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으로 상황 지어진 상상력들에 의해 구성된 복수의 세계들을 구성”하고 있다. 아르준 아파두라이 지음, 채호석·차원현·배개화 옮김, 『고삐 풀린 현대성』, 현실문화, 2004.

려 초국가주의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은 ‘전지구화’ 등의 말 속에 응축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 20세기 말부터 본격화된 국민국가의 모순과 병폐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들 속에는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정치·경제·문화적 공동체를 구축하여 기존의 경계를 무력화한 바 있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 동아시아의 신(新)냉전적 질서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재난은 다시금 국민국가의 경계를 강화시키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과거사를 둘러싼 기억 투쟁과 영토 분쟁은 여전히 동아시아 지역의 탈냉전적 질서를 거슬러 냉전 시대의 잔영을 드리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창궐은 국경의 봉쇄와 함께 자국민과 외국인을 구획 짓고 있는 형국이다. 그리하여 다시금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면서 거기에 권능을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서 이민진의 『파친코』 서사에 나타난 재일조선인을 둘러싼 전후 일본사회의 차별적 구조, 그들의 정체성 구축 과정에서의 동요와 불안, 장소 상실과 대안 공간 모색의 좌절 등 경계 밖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국민국가의 경계 긋기 작업의 폭력성을 폭로하는 것은 손쉬운 일일 것이다. 오히려 그보다는 그와 같은 재일조선인이라는 존재가 남북한과 일본 사이를 상상적으로 넘나들면서 그러한 경계를 지탱하는 상징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아가 경계 그 자체를 무화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경계 위의 존재—결코 어떠한 경우에도 완전히 배제되거나 포섭되지 않는 상태—로서 재일조선인을 하나의 시금석으로 삼아 국민국가의 경계 너머 인간 존재 방식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첫 20여 년이 지난 현 시점, 특히 여전히 국민국가의 위력이 강화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정세를 감안했을 때, 이민진의 『파친코』 서사에 나타난 재일조선인들의 선택과 욕망을 통해 트랜스내셔널 디아스포라의 탈경계적 삶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김시중 지음, 유숙자 옮김, 『김시중 시선집 : 경계의 시』, 도서출판 소화, 2008.
이민진 지음, 이미정 옮김, 『파친코 ①』, 문학사상, 2018.
이민진 지음, 이미정 옮김, 『파친코 ②』, 문학사상, 2018.

2. 단행본

- 미즈노 나오키·문경수 지음, 한승동 옮김, 『재일조선인: 역사, 그 너머의 역사』, 삼천리, 2016.
산드로 메자드라·브렛 닐슨 지음, 남청수 옮김, 『방법으로서의 경계』, 갈무리, 2021.
아르준 아파두라이 지음, 채호석·차원현·배개화 옮김, 『고피 풀린 현대성』, 현실문화, 2004.
존 리 지음, 김혜진 옮김, 『자이니치: 디아스포라 민족주의와 탈식민 정체성』, 소명출판, 2019.
테사 모리스 스키 지음, 한철호 옮김, 『북한행 엑소더스—그들은 왜 ‘북송선’을 타야만 했는가』, 책과함께, 2008.
尹健次, 『「在日」の精神史3』, 岩波書店, 2015.
Balibar, Étienne, *Politics and the Other Scene*, London: Verso, 2002.

3. 논문

- 강진구·김성철,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코리아디아스포라 문학 연구 경향 분석」, 『우리문학연구』 제69집, 2021, 우리문화회, 325-359면.
김환기,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의 경계식과 ‘트랜스내이션」, 『횡단인문학』 창간호,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인문학연구소, 2018, 63-86면.
리홍장,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을 보는 시각: ‘더블’의 역사서에 관한 담론을 통해」, 『일본비평』 제14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6, 134-157면.
손영희, 「디아스포라 문학의 경계 넘기: 이민진의 『파친코』에 나타난 경계인의 실존양상」, 『영어영문학』 제25권 3호, 미래영어영문학회, 2020, 65-86면.
이승연, 「생존을 위한 도박: 『파친코』를 통해 보는 자이니치의 삶 『파친코』」, 『아시아여성연구』 제58권 3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9, 209-216면.
이한정, 「재일조선인과 디아스포라 담론」, 『사이間SAI』 제24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2, 259-284면.

임진희, 「민진 리의 『파친코』에 나타난 재일한인의 장소담론」,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Vol.9, No.8,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9,, 271-280면.

조정현,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국제법상 난민·이민자 보호-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국제법평론』 제47호, 국제법평론회, 2017, 37-56면.

<Abstract>

Beings on the Border

– The way of existence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through
Min-jin, Lee's *Pachinko*

Oh, Tae-Young

In this article, I tried to examine the way of existence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s beings above the boundary through analyzing the narrative of Min-jin, Lee's *Pachinko*. In the postwar Japanese society's discriminatory structure of ethnic nationalism, Korean residents in Japan were experiencing anxiety and agitation in establishing their own identity. The narrative of *Pachinko* is a existence on the boundary, and while the desire and expression of self-preserv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re reinforced in a discriminatory social structure, it narrates a paradoxical situation that can never be achieved. Meanwhile, in postwar Japanese society, Korean residents in Japan were constantly in the process of moving. Their movement was the result of those who had lost their place and were attracted by the desire to settle down. However, even if they dreamed of a place that was neither Japan nor Joseon nor a place where the hierarchical discrimination structure between Japanese and Koreans did not work, Korean residents in Japan could never find and settle there. In this regard, the process of their continuous movement itself testifies to the placelessness among Korean residents in Japan who are pushed out of the borders in post-war Japanese society. It is necessary to see that the existence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cross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Japan, raising questions about the symbolic order

that supports such a boundary. Through the choices and desires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in the narrative of Min-jin, Lee's *Pachinko*, the possibility of transnational diaspora life without boundaries can be predicted.

Key words: Korean residents in Japan, border, mimicry, exclusion, transnational, diaspora

투 고 일: 2021년 5월 16일

심 사 일: 2021년 6월 12일

게재확정일: 2021년 6월 15일

수정마감일: 2021년 6월 22일